

4. 교육 · 학술교류

2006년 남북간 교육 · 학술교류는 상반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하반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인력 전문가교육,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원건립, 고구려 동북공정 관련 실태조사, 다양한 분야의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 운영」사업은 2007년 개교를 목표로 1단계 대학원(IT : Information Technology, BT : Bio Technology, MBA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과정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 · 북 · 해외 교수진이 함께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북한과 협의 중이다.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교수진이 최초로 장기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학생에게 강의를 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국내 여러 대학들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측 시설 현대화 및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설비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35만종 250만권에 달하는 자료를 남북이 공유하게 된다. 동 사업은 민족의 지식정보자산을 확충하고 우리 학계에 귀중한 원자료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도서관시스템 통합 및 도서목록 공유 등 남북 도서관 교류 및 참여대학들과 김일성대 간의 학술교류로도 발전될 전망이다.

중국 단둥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하나비즈 닷컴은 2001년부터 2006년 3월까지 3개 기수 총 93명의 교육생을 교육시켰다. 이 사업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의 「우리민족 인재양성센터」가 인수받아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66명을 교육시켰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의 인력은 주로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IT관련 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전경

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향후 북한의 과학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항공과대학교는 2006년 4월 평양에서 정보·생명·나노·환경공학 분야를 주제로 남·북·해외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향후 남북간 과학기술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양 일대 9기의 고구려고분군에 대하여 남북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실태조사로 고구려사 관련 남북공동연구를 심화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 공조대응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통한 남북화해협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진파리 4호분·호남리 사신총·용강대총·쌍영총 등 4기의 고분

이 우리 학자에게 최초로 공개되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

고구려연구재단은 고구려사 남북공동연구를 수행하여, 2006년 4월 남북 공동으로 평양 안학궁터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측과 한국사 관련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은 2006년 3월, 5월 각각 중국 상해, 심양에서 북한주민의 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학술회의를 남·북·중 공동으로 개최하여 북한 내 내분비질환 치료제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북당국간 합의된 사업으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 사업이 2005년 1차, 2차 실무접촉에 이어 2006년 3월 제3차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제3차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함께 중국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남북한은 중국과 협조과정을 거친 후 6월초 중국 대련시 여순구 여순감옥 뒷산 공동묘지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남북공동 시굴 및 발굴을 2007년 2월 또는 3월 중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5. 출판 · 언론교류

남북한 출판교류는 남북한 공동편찬, 북한 저작물의 국내 출판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펴내는 우리말 사전인『겨레말큰사전』은 지역적으로 남·북·해외를 망라하고 방언, 생활언어 등을 망라한 30만 단어 규모의 남북 통합사전으로, 2012년 발간될 계획이다.

남북은 2005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전편찬요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남북공동조사(중국 여순감옥 뒷산)

강에 합의한 뒤, 2006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은 각각 어휘조사를 수행하여 매 분기별 개최되는 남북공동편찬회의에서 사전 올림말을 선정하고 올림말 뜻풀이 방안 및 어문규범 단일화 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전편찬 공정은 약 20% 가량 진행되었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북한 저작권 대리중개 관련 합의를 체결하고, 남북 저작권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 저작물의 무단 출간 또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남북 저작권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기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북한 저작물 이용 절차가 보다 용이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2006년 들어 동 재단의 중개로 동화, 전설집, 역사소설, 건강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도서가 국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바 있다. 이러한 출판물은 북한의 사회문화 및 학술연구 성과 등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5차회의

대표적으로, (주)자음과모음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 역사 소설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주몽』, 『독도 지킴이 안룡복』 등 장편 역사소설 5권을 출간하였다.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손자인 북한 작가 홍석 중의 장편소설 『황진이』의 영화화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인기배우 송혜교를

주연으로 한 영화『황진이』가 제작되고 있다.

남북한 방송·언론교류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류사업 및 지상파 방송사·언론사의 방북취재 등이 진행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동아시아축구대회에 이어 2006년에는 독일월드컵경기 대북 위성중계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개·폐막식 및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를 포함한 전 경기 화면을 북한에 송출하였다. 국제경기 위성중계 지원은 남북방송교류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방 세계의 발전된 모습을 접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개혁·개방 및 의식개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BS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남북합작 드라마『사육신』을 제작하고 있다. 회당 70분, 총 24회 분량의 역사극『사육신』은 일종의 외주 제작 방식으로 북한이 대본, 배우, 촬영을 전담하고 KBS측은 완성품을 구매하여 우리측에서 방영하게 된다. 기존의 남북 방송교류가 방북취재, 다큐멘터리 촬영 등을 위주로 진행된 반면,『사육신』 제작사업은 외주 제작 방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 교류로 주목받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드라마 촬영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2007년에는 국내에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월간『민족21』은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북한 통일신보, 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기사교류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기사 및 사진을 매달 지면에 게재하고 있다. 동 월간지는 부정기 방북취재를 진행하는 등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을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조선신보사, 통일신보사와 공동으로 남북공동사진전『평양 사람들의 서울나들이』를 전국 순회 개최하였다.

6. 기 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은 2006년 4월 10일과 5월 16일 개성특

구지역에서 「제1차 통일꿈나무 개성지역 식목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때 동 사업에 동참했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은 북한의 개성지역 중앙개발지도총국측 관계자의 요청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제2차 개성지역 평화통일 숲가꾸기」 사업에 합의하여 2006년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710명이 방북, 은행나무 등 약 10,000그루를 식목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식목행사 외에 개성특구지역 사업 브리핑 청취, 홍보동영상 시청, 사업현장 참관, 현대아산 개성사무소 등 남북간 경제교류의 중심지를 방문하여 남북간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다.

2006년 9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 故김규식 선생 등의 후손 15명과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50명이 추석을 맞이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묘역에 분산 안치되어 있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였다. 반세기만에 조상의 묘소를 찾은 후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며, 인도적 차원에서 성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4절 계층별 · 지방자치단체 교류

1. 직능단체간 교류협력

2006년은 6.15공동위원회 산하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여성 등 각 계층별 분과를 중심으로 다른 해보다 계층 · 직능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 부문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각 계층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을 협의하고 연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 여성은 처음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2006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여성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통일운동의 방향과 여성들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노동부문은 개성에서 남북 대표 45명이 참가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5월 노동절 기념행사로써 2006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5.1절 평양행사 참관단사업」을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동 행사에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대표 150여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노동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고 참관행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행사 기간중 일부 참가자가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것에 대해, 교류협력질서에 반하는 방북 활동이라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5년도에 두 차례 남북대학생교류행사가 개최된 데에 이어, 2006년도에 대학생 300여명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4월 「남북농민대표자회의」, 11월 「남북언론인토론회」등 각 계층 및 직능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 이후 민주노동당의 조선사민당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물꼬를 트게 된 정당교류는 2006년도에는 정당별 청년위원회 방북 및 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북으로 이어졌다. 각 정당(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청년위원회 소속인원 89명은 2006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청년학생 교류사업을 논의하고 평양 역사유적을 답사하였다.

북핵실험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대표단과 북한 조선사민당과의 교류는 지속되었다. 시기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였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연루된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방북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방북기간중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북핵실험에 대한 남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다양한 분야의 남북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순수 민간과 중앙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양자의 이점을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교류분야로서 기대가 큰 분야다.

강원도는 정덕기 민화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36명의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2006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춘천으로 초청하여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를 개최하였다. 북한 아이스하키가 1990년 제2회 삿뽀로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획기적 순간이었다. 선수들은 남북의 구별 없이 한데 섞여 ‘우리팀’과 ‘하나팀’을 만들어 친선경기를 벌였다. 또한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강원도 대표단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 문재덕 조선체육지도위원장과 「2014년 동계올림픽」평창 유치에 대한 상호협력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삼지연 빙상장 아이스링크 시스템을 북한에 설치·지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하였다.

서울시는 「금강산윤이상음악회」 지원을 통해 문화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위내시경 등 의료장비를 평양 조선암센터에 지원하는 등 남북교류에 기여하였다.

경기도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공동으로 2005년에 시작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벼농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도로포장 및 농업시설확충을 비롯한 농업 기반조성사업과 진료소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1월에는 당곡리 주민들이 벼수확량 증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쌀 1톤을 경기도에 선물하기도 하였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감귤 등 농산물 보내기 사업을 2006년에도 실시하여 감귤 1,000톤, 당근 5,000톤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북 제천시가 2006년에도 가장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였다. 제천시는 북고성군 삼일포농장과 온정각에서 「금강산제천사과 삼일포농장 사과수확 축제행사」와 「금강산제천사과 판매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삼일포농장의 과수생육상태 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남북간 영농기술협력에 기여했다.

한편, 2006년에는 최초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11월 30일 첫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중앙-지방간 및 지자체간 남북교류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 협조를 통해 남북간 지자체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